
전체 주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인
교회의 건축을 위한
주님의 회복의 내재적인 의미

메시지 4

하나님의 제단—번제단—의 증견

성경: 스1:2-3, 5, 3:1-6상, 시43:4상, 엡5:2, 롬12:1

I.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새”—스3:2하.

- A. 하나님의 집의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는 제단의 회복이 필요하다—1:2-3, 5, 3:2-3.
1.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어떠한을 반드시 제단 위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2. 교회 생활을 위해 회복되어야 할 첫 번째 것은 제단이다—롬12:1.
 - a.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두어야 한다—시43:4상.
 - b.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어떠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반드시 제단 위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시작이다.
 3. 문제는 우리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많은 것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익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드리지 않는지도 모른다—롬12:1.
 - a. 우리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바벨론에서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 b.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주님의 권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 B.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출27:1, 40:6, 히13:10.
1.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한 인격—그리스도—과 한 길—십자가—을 주신다—고전2:2.
 - a. 십자가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운행의 중심이다—갈1:4, 2:19-21, 3:1, 13, 5:24, 6:14.
 - b.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십자가로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십자가로 처리하신다—갈1:20-22, 2:11-15.
 2. 십자가가 모든 영적 체험의 기반이요 근거이다. 모든 영적 체험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한다—갈2:20, 6:14, 고전2:2.
 - a. 영적으로 전진하려면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마10:38, 16:24, 눅14:27.
 - b.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해야 한다—엡2:14-16.

- c.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게 되고, 아무 것도 없게 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치물이 될 것이다—고전1:17-18, 23.

II.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으니”—스3:6하.

- A. 번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절대적이심을 상징한다—레1:3-9.
 - 1. 전체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번제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엡5:2.
 - 2. 번제는 하나님을 위해 온전하고 절대적인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요5:19, 30, 6:38, 7:18, 8:29, 14:24, 고후5:15, 갈2:19-21.
 - 3. 번제는 그리스도 자신이며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다. 그러므로 번제는 또한 우리와 그리스도의 하나됨이다—고전6:17.
- B. 번제는 하나님의 음식을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만족하시기 위한 것이다—민28:2.
 - 1.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그분 스스로 먹을 것을 공급하실 수 없으시다. 그분의 음식은 반드시 그분의 백성에게서 나와야 한다—2절.
 - 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음식이시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식이 아니시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음식이시다.
- C. 번제는 ‘여호와를 만족게 하는 향기’ 이다—레1:9, 13, 11, 17.
 - 1. 히브리어로 ‘번제’ 라는 말을 직역하면 ‘올라가는 것’ 을 의미하며, 이것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어떤 것을 가리킨다—3절.
 - 2. 만족게 하는 향기는 만족과 평강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냄새이다. 그렇게 만족게 하는 향기는 하나님에게 누림이 된다.
 - 3.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절대적인 삶을 사셨으므로, 그분의 생활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만족시키는 향기, 달콤한 냄새였다—엡5:2.
 - 4. 번제를 태우는 것은 달콤한 향을 태우는 것과 같다—출30:7-8, 레16:12-13.
- D. 재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6:10, 막9:12.
 - 1. 우리는 재가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되었으므로 우리도 재가 된다. 그것은 바로 감소되어 아무 것도 아닌 것, 무(無)가 되는 것이다—고전1:28.
 - 2. 재를 제단의 동편, 즉 해 뜨는 편에 두는 것은 부활에 대한 인유(引喻)이다—레1:16, 요11:25, 고후1:9.
 - 3.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을 가져오고, 부활 안에서 재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귀중한 재료들이 된다—고전3:9하, 12상.
 - 4.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위한 귀중한 재료들은 재의 변화에서 온다. 그러므로 결국 재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롬12:1-2, 고후3:18, 계21:18-21.
- E. 번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인 마음—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롬12:1.